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과 구성 유형

조 효 숙 · 이 은 진⁺

가천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Changing Trends and Classification of Composition Styles of Treasure Patterns on Textiles in Joseon Period

Hyo-Sook Cho · Eunji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Gach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17, revised date: 2015. 8. 11, accepted date: 2015. 11. 4)

ABSTRACT

Treasures patterns are simplified designs of vessels used in everyday life, which were symbols of luck. Treasures patterns on textiles are largely assorted into four groups: eight auspicious patterns of Buddhism, eight immortal patterns of Taoism, seven treasures patterns of King Chakravarti in the Buddhist Scriptures and normal treasures patterns. Among them normal treasures patterns are most commonly used. Records in the Joseon documents show these patterns as being composed of seven treasures patterns or eight treasures patterns. But observation of the actual relics show that these patterns ranged from four to ten patterns. Korean traditional textiles treasures patterns began to appear in Korea on the relics of the last of Goryeo period. They were used as sub-patterns among main patterns of dynamically rising cloud patterns with five heads. Treasures patter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commonly used as sub-patterns, and cloud and treasures pattern were prime examples of this. In the 16th century, lotus vine pattern, small flower vine pattern, or small flower pattern were often used as main patterns and treasures patterns were regularly used as sub-patterns. The robe of the Great Monk of Seo San was unique, in that both main and sub patterns consisted of the treasures patterns. From the 17th century, treasures patterns began to be used as main patterns. For example, a relic with eight alternatively arranged treasures patterns were found. Though there were still some cases where the patterns were used as sub-patterns, they begin to appear bigger than the previous period and became similar to main patterns in siz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re were various cases where treasures patterns were combined with flowers, fruits, animals, and letter patterns and used as main pattern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methods of representing and developing the patterns.

Key words: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팔길상무늬),
the eight good luck symbols pattern(팔보무늬),
the eight taoist symbols pattern(팔선무늬),
the seven good luck Symbols pattern(칠보무늬), the treasure patterns(보배무늬)

이 논문은 2012 the 25th International Costume Congress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일부 활용하고 추가로 자료 조사 및 재분석을 통하여 수정, 보완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Eunjin Lee, e-mail: imjeann@hanmail.net

I. 서론

보배무늬[寶紋]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물 중에서 복되고 길한 일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긴 상징물을 도안하여 무늬로 활용한 것이다. 보배무늬는 조형미나 장식효과보다는 무늬가 지닌 길상적인 의미나 액을 막는 상징성 때문에 복식을 비롯하여 생활소품, 침구, 가구, 도자기, 단청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늬 도안으로 애용하였다.

보배무늬에 관한 선행연구는 직물뿐만 아니라 자수, 장신구, 초상화, 목공예, 금속공예, 나전칠기, 도자기, 단청 등 다양한 분야의 현존 유물에 나타난 사례를 조금씩 폭넓게 고찰한 Lim(1979), Yoon(1997)의 연구, 보배무늬의 기원과 종류, 상징성, 배치구도 등을 고찰한 Ha(1996)와 Lee, Jang, Do, & Jang(2004)의 연구, 직조를 비롯한 금박, 자수, 염색 등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종류와 조형성, 빈도 등을 고찰한 Oh(2008)의 연구 등이 있다.

한국 전통 직물에서 현존하는 보배무늬의 유물은 고려 말기부터 나타난다. 고려 말기 유물로는 문수사의 1346년 아미타불 복장직물, 장곡사의 1346년 철조약사불 복장직물, 공민왕이 1360년에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사 묘 직물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전 시기에 걸쳐 보배무늬가 다양한 유형으로 애용되면서 시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을 고찰하고 구성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전통 무늬의 조형 특성을 고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결과를 축적해 간다면 복식 유물의 연대나 생산국가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무늬들은 전통한복용 옷감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패션의류, 주얼리,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늬의 모티브로서 현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보배무늬의 호칭이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Lim(1998)과 Ha(1996), Lee, Jang, Do, & Jang(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합여의형 구름무늬를 보운문으로 보았으며, Lee et al.(2004)은 이를 단독형 보배무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여의, 연꽃, 매화, 반장, 만(卍)자 등의 무늬가 직물에서 하나만 사용된 경우는 보배무늬의 일부라기보다 자연산수무늬나 꽃무늬, 문자무늬, 기하무늬의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한 직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배무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전통 직물에 있어 직조로 표현된 보배무늬이며, 자수와 부금, 염색 등 소재 가공 기법에 따른 보배무늬는 변화양상이 직조와는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배무늬가 나타난 직물은 모두 121점이다. 출토 유물의 경우 묘주의 생몰년이 두 시기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시기 구분은 출생연도보다는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보배무늬의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기준점으로 하여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전기, 17, 18세기는 중기, 19, 20세기는 후기로 구분하면 조선 전기의 것이 38점, 조선 중기의 것은 68점, 조선 후기의 것은 15점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에 나타나는 보배무늬의 기록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박물관의 도록, 출토조사보고서, 단행본 등을 통하여 직조된 보배무늬의 유물을 조사하고, 대부분의 유물이 해당되는 조선시대 유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과 구성 유형을 분석하였다.

II. 문헌에 기록된 보배무늬

보배무늬는 불교와 함께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칠보대(七寶臺)’, 『고려사(高麗史)』에 ‘칠보요대(七寶腰帶)’, ‘칠보기(七寶器)’ 등 ‘칠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Goryosa, 1449-1451: *Samguk-yusa*, 1281) 이것이 무늬의 명칭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직물의 무늬로서 가장 이른 기록은 1504(연산군 10)년에 ‘남필단만금선(藍匹段滿金線)을 칠보세화문(七寶細花紋)으로 짜서 들이랴’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기록이다(The Annals of lord Yeonsan, 1504). 더욱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출토 복식에서도 ‘칠보세화문’이

라는 문헌에 기록된 명칭에 적합하게 형태 특성이 약하여 특정한 꽃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작은 꽃들과 함께 보배무늬를 직조한 직물이 사용되어(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06)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물의 보배무늬는 크게 불가(佛家)의 팔길상무늬[八吉祥文], 도가(道家)의 팔선무늬[八仙紋], 전륜왕(轉輪王)의 칠보무늬[七寶紋], 일상생활에서 길상을 추구하는 기물들을 도안한 일반보배무늬[雜寶]의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NRICH, 2006).

불가의 팔길상무늬는 극락정토에 있는 여덟 가지 보배를 말한다. 이는 세상만사를 덮는다는 보개(寶蓋), 접고 펴기 자유로워 중생의 교화를 뜻하는 보산(寶傘), 생사 해탈을 뜻하는 사리병 모양의 보병(寶瓶), 수레바퀴처럼 구르는 법륜(法輪), 윤회와 연속을 상징하는 매듭 모양의 반장(盤長), 음악을 연주하는 소라 모양의 법라(法螺), 번영과 부귀를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의 금어(金魚),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화(蓮花)로 구성된다.

도가의 팔선무늬는 암팔선무늬[暗八仙紋] 또는 팔길선무늬라고도 하며, 여덟 명의 선인들이 각각 지니고 있다는 여덟 가지의 물건이다. 한종리(漢種離)가 지니며 기사회생을 상징하는 부채 모양의 보선(寶扇), 여동빈(呂洞賓)이 지니며 악을 물리치는 보검(寶劍), 이철괴(李鐵拐)가 지니며 중생을 구원하는 약품을 상징하는 호로(胡虜), 장과로(張果老)가 지니며 새 삶을 상징하는 어고(魚鼓), 조국구(曹國舅)가 지니며 만물에 천상의 소리를 전하는 음양판(陰陽板), 한상자(韓湘子)가 지니며 만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피리 모양의 옥적(玉笛), 남채화(藍采和)가 지니며 널리 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꽃바구니 모양의 화람(花籃), 하선고(何仙姑)가 지니며 몸을 깨끗하게 하는 하화(荷花)로 구성된다.

전륜왕의 칠보는 불교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있다는 상상의 산인 수미산(須彌山) 둘레 사천하(四天下)의 세계를 통솔하는 윤왕(輪王), 즉 수미의 사주(四洲)를 다스리는 금륜왕(金輪王), 동·남·서의 삼주(三洲)를 다스리는 은륜왕(銀輪王), 동·남 이주(二洲)를 다스리는 동륜왕(銅輪王), 남녘 염

부제(閻浮提) 일주(一洲)를 다스리는 철륜왕(鐵輪王)이 즉위하던 날 하늘에서 날아 온 일곱 가지 보물을 말한다(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orean classic term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KSGMS & KCTCC], 2001). 이는 왕이 가고자 하면 저절로 굴러 잠깐 사이에 천하를 다 돌 수 있다는 금륜보(金輪寶), 달 없는 밤에도 허공에 달면 낮과 같이 밝게 된다는 여의주보(如意珠寶), 몸에 바르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칼에 현 곳을 바르면 바로 아무는 전단향이 나는 옥 같은 여인 옥녀보(玉女寶),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서 금, 은, 유리, 파려, 차거, 마노, 적진주가 나며 창고의 재물을 관리하는 신하 주장신보(主藏臣寶), 병마(兵馬)를 주관하는 신하 주병신보(主兵臣寶), 왕이 타고 나가면 천하를 하루 안에 다 돌아오며 밟은 땅은 모래가 금이 된다는 말인 마보(馬寶), 왕이 타면 천하를 하루 안에 다 돌아오며 물을 건너서도 물이 움직이지 않으며 젖지도 않는다는 흰 코끼리인 상보(象寶)의 일곱 가지이다(KSGMS, 1992). 주로 탕화 또는 사일초과 일 같은 불교행사에 사용되는 불구수식(佛具垂飾)에 사용되며(Lim, 1979), 생김새는 일반보배무늬와 비슷하여 금륜보는 전보, 옥녀보는 방승, 주병신보는 서책, 마보는 특경, 상보는 쌍서각과 유사하다(NRICH, 2006). 이러한 전륜왕의 칠보무늬는 왕위와 권위를 상징하고 국왕이 선정(善政)을 하는데 필요한 보물로 여겨져(Yoon, 1997) 왕실의 기물에 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복식 유물의 경우 왕실의 노리개 등에 전륜왕의 칠보무늬가 사용된 사례는 있으나 일곱 가지를 모두 갖추어 직조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보배무늬는 중국의 경우 ‘잡보문(雜寶紋)’이라고 하지만 우리 문헌에는 잡보문이라는 용어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며 주로 ‘칠보문(七寶紋)’ 또는 ‘팔보문(八寶紋)’이 기록되어 있다(NRICH, 2006). 그런데 유물을 조사해보면 일곱 가지 또는 여덟 가지의 보배무늬를 반드시 갖추기보다는 네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RICH, 2006). 조선시대 직물에 많이 나타나는 일반보배무늬는 단서각(單犀角), 쌍서각(雙犀角), 서책(書冊), 전

보(錢寶), 보(輔), 산호(珊瑚), 방승(方勝), 보주(寶珠), 여의(如意) 등이며, 화염(火焰), 진주, 만자(卍字), 폭보, 특경(特磬), 경보(鏡寶), 호마노도 나타난다(NRICH, 2006).

한편 궁중에서 사용한 물목을 기록한 『별기』에는 보배무늬와 관련된 명칭으로 ‘칠보문사’, ‘칠보문갑사’, ‘칠보문생수갑사’, ‘칠보문단’, ‘칠보소룡문사’, ‘칠보소룡문갑사’, ‘칠보소룡문단’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Lee, 2004), ‘팔보’의 기록은 찾기 어렵다. 반면 중국에서 보낸 직물의 목록을 기록한 자료에는 ‘팔보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타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5년(1433) 10월 13일에는 ‘팔보골타운(八寶骨朵雲)’¹⁾, 『문종실록(文宗實錄)』 즉위년(1450) 4월 29일에는 ‘골타운감팔보(骨朵雲嵌八寶)’, ‘팔보천화운(八寶天花雲)’²⁾ 등 대부분 ‘팔보’가 기록되었다.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朴通事)』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에도 ‘팔보골타운(八寶骨朵雲)’과 ‘천화감팔보(天花嵌八寶)’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Korean History Resources Research, 1995; Suh, 2003) 팔보무늬를 운문이나 천화무늬와 함께 도안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주로 우리나라는 ‘칠’이라는 숫자를, 중국은 ‘팔’이라는 숫자를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보배무늬를 애용할지라도 민족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NRICH, 2006).

III.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

1. 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보배무늬는 38점 중 35점이 보조무늬로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운보문(雲寶紋), 즉 ‘구름과 보배무늬’이다. <Fig. 1>은 양천 허씨(1400~1450년) 저고리의 무늬로 사선방향 꼬리로 연결된 여의형 구름을 주무늬로 하여 그 여백에 서책, 진주,

전보, 화주, 보, 단서각, 쌍서각, 산호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배열하였다. <Fig. 2>은 청주 한씨(1550년대 추정) 저고리의 무늬도 사합여의형 구름을 주무늬로 하여 단서각, 쌍서각, 보, 서책, 화주, 전보, 산호의 일곱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구름을 주무늬로 하고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한 유형은 조선시대에 꾸준히 애용된 무늬로 전체 연구대상 121점의 유물 중 54점이며, 전기의 유물 38점 중에서는 17점이 이에 해당한다.

<Fig. 1> Cloud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Huh Family originated in Yangcheon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SJMMDU], 2001, p. 36)

<Fig. 2> Cloud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Han Family originated in Chengju (SJMMDU, 2001, p. 28)

1) 『世宗實錄』 62卷, 15年(1433) 10月 13日. “又勅曰 今遣太監昌盛等來 賜王彩幣 八寶骨朵雲暗花靑哥綠1匹 八寶骨朵雲暗花黑綠 1匹”

2) 『文宗實錄』 1卷, 卽位年(1450) 4月 29日. “措辦到雜色馬五百匹 第作二運差陪臣 判司譯院事李含 織錦胸背白澤靑一匹 暗花骨朵雲嵌八寶綠二匹 暗花八寶天花雲靑一匹”

16세기에는 연꽃이나 작은꽃 등을 주무늬로 하고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배열한 유형이 애용되었

다. 특히 파평 윤씨(?~1566년) 저고리의 무늬인 <Fig. 3>처럼 연꽃넙쿨을 주무늬로 하고 방승, 보, 산호, 단서각, 화주의 다섯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배열한 유형이 많이 보인다. 연안 김씨(1500년대 추정) 저고리의 무늬 <Fig. 4> 역시 연꽃넙쿨을 주무늬로 하여 화주, 산호, 보, 방승, 단서각의 다섯 가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꽃무늬를 주무늬로 하고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한 유형은 전체 연구대상 121점의 유물 중 30점이며, 조선 전기의 유물 38점 중에서는 15점이 이에 해당한다.

<Fig. 3> Lotus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Yun Family originated in Papyeong (NRICH, 2006, p. 53)

<Fig. 4> Lotus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Family originated in Yeon-an (NRICH, 2006, p. 52)

연안 김씨(1500년대) 저고리의 무늬인 <Fig. 5>는 보상화풍 앞사귀가 다섯 방향으로 뻗은 보상화풍 절지형 작은 연꽃을 주무늬로 하여 그 여백에 방승, 쌍서각, 산호, 전보, 서책, 여의, 화주, 보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드문드문 배열하였다. 비슷한 시기 정온(1481~1538년)의 구의에도 보상화풍 절지형 연꽃을 주무늬로 하고 방승, 쌍서각, 전보, 서책, 여의, 화주, 보, 진주의 여덟 가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한 무늬가 있다. 신여관(申汝灌 1530~1580년)의 방령 상의에도 보상화풍의 절지형 연꽃을 주무늬로 하고 쌍서각, 단서각, 산호, 전보, 서책, 화주, 보의 일곱 가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하고 그 여백에 작은 원형의 무늬로 채운 직물이 사용되어 이러한 유형이 당시 유행하였던 직물 무늬임을 알 수 있다.

<Fig. 5> Lotus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Family originated in Yeon-an (NRICH, 2006, p. 161)

<Fig. 6> Lotus, Cloud and Treasures Pattern Bed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Sim Su-ruen (NRICH, 2006, p. 365)

〈Fig. 7〉 Small Flower and Treasure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Huh Family
originated in Yangcheon
(SJMMDU, 2001, p. 116)

〈Fig. 8〉 Peony, Lotus, Peach, the Eight Buddhist
Symbols, the Eight Tao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Fabric inside Buddhist Statu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Sudeok Temple, 2004, p. 80)

이와 흡사한 무늬로 심수륜(1534~1589년) 이불에 사용된 〈Fig. 6〉은 보상화풍 잎사귀가 다섯 방향으로 뻗은 보상화풍 절지형 작은 연꽃과 함께 네 개의 꼬리가 달린 여의형 구름을 주무늬로 번갈아 배열하고, 여백에 방승, 단서각, 산호, 전보, 서책, 여의, 보, 화주, 보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배열하였다. 주무늬로 사용된 절지형 꽃무늬의 형태가 흡사하고, 여덟 가지의 보배무늬도 쌍서각이 단서각으로 바뀐 것 외에는 구성이 유사하다.

또 〈Fig. 7〉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 종류의 작은꽃무늬를 한 줄씩 엇갈리게 배열해 이를 넝쿨로 연결하고 여백에 일반보배무늬를 배열한 사례가 양천허씨(1400~1450년)와 연안 김씨(1500년대) 저고리 2점에 나타난다. 한편 조선 전기의 불복장 직물로 알려진 〈Fig. 8〉은 모란과 연꽃, 복숭아와 함께 불가의 팔길상무늬 중의 하나인 반장, 도교의 팔선무늬 중의 하나인 부채, 일반 보배무늬 중의 하나인 여의, 생황 등을 단위무늬로 하여 주무늬와 보조무늬의 구분 없이 약간의 여백을 두고 배열하였다. 이처럼 불가의 팔길상무늬, 도교의 팔선무늬, 일반보배무늬가 하나의 직물무늬로 조합된 사례는 16세기까지는 매우 드물다.

2. 조선 중기

조선 중기의 유물 68점 중에서는 전기에도 애용되

었던 구름과 일반보배무늬가 29점이며 연꽃과 일반보배무늬는 15점, 작은꽃과 일반보배무늬가 1점이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17세기 즈음부터는 창 의도포, 배자 등의 일반 복식에서 보배무늬를 보조무늬가 아닌 단독의 주무늬로 사용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지는 변화이다. 그 예로 동래 정씨(1600년대 추정) 배자와 대림금의 무늬인 〈Fig. 9〉처럼 보주, 산호, 서책, 쌍서각, 방승, 여의, 전보, 보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들을 주무늬로 하여 여백이 많지 않게 각각 한 줄씩 엇갈리게 배치한 유물이 나타났다. 신경유(1581~1633년) 창 의의 무늬도 〈Fig. 10〉처럼 쌍서각, 산호, 보, 여의, 방승, 전보, 서책, 화주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번갈아 마름모꼴로 배치하였는데 무늬의 도안은 더 단순하고 여백이 더 넓으나 일반보배무늬의 종류와 단위무늬의 배열방식이 동래 정씨 배자 및 대림금과 유사하다.

또 종교 관련 용도가 아닌 일반 복식에 사용된 직물이지만 불가의 팔길상무늬를 모두 갖추어 사용한 사례들도 보인다. 신경유 도포의 무늬인 〈Fig. 11〉은 팔길상무늬인 보개, 보산, 보병, 법륜, 반장, 금여, 법라, 연화의 여덟 가지 무늬를 주무늬로 번갈아 마름모꼴로 배열하였으며, 구 의인 〈Fig. 12〉 역시 보상화풍 절지형 연꽃무늬를 주무늬로 하여 팔길상무늬를 마름모꼴로 번갈아 배열하였다. 안동 권씨(1664~1722년) 저고리 끝동의 무늬인 〈Fig. 13〉은 팔길상

〈Fig. 9〉 Treasures Pattern
Vest excavated from the tomb of Jeong Family
originated in Dongrae
(SJMMDU, 2001, p. 192)

〈Fig. 10〉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
Coat excavated from the tomb of Shin Gyeongyu
(SJMMDU, 2008, p. 75)

무늬 중 보상화풍의 절지형 연화를 주무늬로 하고 보산, 보개, 보병, 법륜, 반장, 금어, 법라의 일곱 가지는 보조무늬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동 권씨(1664~1722년) 원삼 선단의 무늬인 〈Fig. 14〉처럼 팔길상무늬 중 보개, 보병, 반장과 팔선무늬 중 보선, 호로, 일반보배무늬 중 영지, 방승, 특경, 서각, 서책, 산호, 화주 등 세 종류의 보배무늬를 모두 조합하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구름과 학을 더하여 각각을 주무늬로 하여 산점구도로 배열한 유형도 보인다. 독특하게는 동래 정씨 이불의 무늬인 〈Fig. 15〉는 등룡과 팔길상무늬, 일반보배무늬를 조합하여 등룡의 상단에는 보개가, 하단에는 연화가 있고, 여의와 보주, 방승, 산호와 보, 서각과 전보가 네 가지 단위무늬를 이루며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한 사례가 1점 있다.

보배무늬가 꽃무늬와 조합된 유형도 다양하게 애용되었다. 〈Fig. 16〉의 홍우협(1655~1691년) 묘 직물처럼 연꽃넙쿨을 주무늬로 하고 여의, 산호, 전보, 화주, 서책, 보, 방승, 단서각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은 16세기의 전형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절지형 꽃을 주무늬로 하고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은 사례도 보인다. 탐릉군(1636~1731년) 이불의 무늬인 〈Fig. 17〉처럼 보상화풍 연꽃과 정면형 국화를 주무늬로 한 줄씩 번갈아 배치하고 그 여백에 불가의 팔길상무늬 중 법륜

과 반장, 일반보배무늬 중 단서각과 여의의 네 가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배열한 유물이 있다. 또 〈Fig. 18〉처럼 복숭아꽃 속에 복숭아, 모란 속에 석류를 넣은 도안을 주무늬로 격자형으로 배열하고 불수감, 난초, 해당 같은 식물무늬와 더불어 특경과 부채의 두 가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또 안동 권씨 치마의 무늬인 〈Fig. 19〉는 매화와 대나무잎을 조합한 매죽무늬를 절지형 동백과 번갈아 주무늬로 배열하고 산호, 보, 전보, 서책, 방승, 쌍서각, 여의, 보주의 여덟 가지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하였다.

과실을 주무늬로 하고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은 유형도 등장하였다. 양천 허씨(1566~1626년) 이불의 무늬인 〈Fig. 20〉처럼 복숭아, 석류, 불수감, 영지, 감, 계원, 포도, 딸기 등 각종 과일을 주무늬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팔길상무늬인 보산, 보개, 보병, 법륜, 반장, 법라, 금어, 연화를 모두 넣은 사례가 있다. 또 홍우협 묘 직물의 무늬인 〈Fig. 21〉처럼 자식이 많음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 다람쥐를 주무늬로 하고 여의, 전보, 방승, 단서각의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은 경우도 있다. 안동 권씨 치마의 무늬인 〈Fig. 22〉는 영지, 석류, 감, 계원, 모란, 복숭아꽃, 석류꽃, 수국 등 다양한 꽃과 과일을 절지형으로 도안하고, 모란에는 특경, 매화에는 연화, 감에는 여의봉 등을 각각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단위무늬로

〈Fig. 11〉 Treasures Pattern Coat excavated from the tomb of Shin Gyeongyu (SJMMDU, 2008, p. 81)

〈Fig. 12〉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 Funeral pall excavated from the tomb of Shin Gyeongyu (SJMMDU, 2008, p. 166)

〈Fig. 13〉 Lotus and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Kwon Family originated in Andong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1, p. 180)

〈Fig. 14〉 Crane, Cloud, the Eight Buddhist Symbols, the Eight Tao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Court Robe excavated from the tomb of Kwon Family originated in Andong (NRICH, 2006, p. 402)

〈Fig. 15〉 Lantern and Treasures Pattern Bed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Jeong Family originated in Dongrae (NRICH, 2006, p. 419)

만들고, 전보와 새는 보조무늬로, 도교의 팔선무늬 중의 하나인 보선을 절지형 꽃에 연결하여 꽃이나 과일과 보배무늬가 하나의 사물처럼 표현한 사례도 있다.

한편 1692년 조성된 낙산사 공중사리탑 복장물에서는 불가의 팔길상무늬뿐만 아니라 도가의 팔선무늬, 일반보배무늬를 혼합한 유형의 보배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리와 함께 복장되었던 보자기의 무늬인 〈Fig. 23〉은 사실적으로 묘사된 절지형의 매화를 주무늬로 하고, 여백에는 팔길상무늬 중 반장, 보개, 보산, 범륜, 범라, 금어의 여섯 종류와 일반보배무늬 중 보, 쌍서각, 여의, 서책의 네 종류를 번갈아 격자로 보조무늬로 배치하였다. 또 〈Fig. 24〉처럼 원

형의 봉황과 여의형 구름을 주무늬로 하고 보, 생황, 반장과 여의봉, 특경, 연환을 세 가지씩을 하나의 단위무늬로 묶어 보조무늬로 배치한 보자기도 있다. 은함을 찢던 보자기의 무늬인 〈Fig. 25〉는 동백, 연꽃, 국화, 모란의 절지형 사계절꽃과 만자무늬가 중심에 든 십자형의 보상화, 원형의 용을 주무늬로 번갈아 배치하고 나비와 함께 일반보배무늬 중 방승, 전보, 서책, 보, 만자, 보주, 거울, 팔길상무늬 중 보산, 팔선무늬 중 보선 등 각종 보배무늬를 산점구도로 배열하였다. 낙산사 공중사리탑에 복장된 사리 장엄구를 찢던 보자기의 무늬인 〈Fig. 26〉은 경사와 위사의 색상을 바꾸어 공간을 격자형으로 분할하고, 그안에 산

〈Fig. 16〉 Lotus and Treasures Pattern
Fabric excavated from the tomb of
Hong Woohyup
(NRICH, 2006, p. 57)

〈Fig. 17〉 Lotus, Chrysanthemum,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Bed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prince Tamneong
(NRICH, 2006, p. 60)

〈Fig. 18〉 Peach Blossom, Peach,
Peony, Pomegranate, Orchid, a
Fingered Citron and Treasures Pattern
Bed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prince Tamneong
(NRICH, 2006, p. 219)

〈Fig. 19〉 Plum Blossom, Bamboo, Camellia and
Treasures Pattern
Skirt excavated from the tomb of Kwon Family
originated in Andong
(NRICH, 2006, p. 119)

〈Fig. 20〉 Peach, Pomegranate, Persimmon, Grape, Straw-
berry, Lychee, a Fingered Citron and Treasures Pattern
Bed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Huh Family
originated in Yangcheon
(NRICH, 2006, p. 207)

〈Fig. 21〉 Grape, Squirrel and Treasures Pattern
Fabric excavated from the tomb of Hong Woohyup
(NRICH, 2006, p. 299)

〈Fig. 22〉 Plum Blossom, Peony, Persimmon,
Pomegranate, Bird and Treasures Pattern
Skirt excavated from the tomb of Kwon Family
originated in Andong
(NRICH, 2006, p. 209)

〈Fig. 23〉 Plum Blossom,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Wrapping Cloth found inside of the Pagoda in Naksan-temple
(NRICH, 2006, p. 121)

〈Fig. 24〉 Phoenix, Cloud,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Wrapping Cloth Found inside of the Pagoda in Naksan-temple
(NRICH, 2006, p. 277)

〈Fig. 25〉 Flowers Representing Four Seasons, Dragon and Treasures Pattern
Wrapping Cloth found inside of the Pagoda in Naksan-temple
(NRICH, 2006, p. 107)

〈Fig. 26〉 Squared and Treasures Pattern
Wrapping Cloth found inside of the Pagoda in Naksan-temple
(NRICH, 2006, p. 473)

호, 쌍서각, 여의, 전보, 보, 서책, 화주, 만자 등의 일반보배무늬와 소슬금, 마름, 물결, 창살, 연환 등의 기하무늬, 복숭아, 감, 연꽃, 모란, 매화, 살구꽃 등 꽃이나 과실무늬를 한 칸씩 건너 칸마다 배치하였다. 그밖에 〈Fig. 23〉, 〈Fig. 24〉, 〈Fig. 25〉처럼 보조무늬로 사용된 경우일지라도 이전에 비하여 주무늬와의 크기 차이가 적어진 사례들이 나타났다.

3.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유물 15점 중 전기와 중기에 꾸준히

애용되었던 구름과 일반보배무늬가 8점이었으며, 연꽃과 일반보배무늬, 작은꽃과 일반보배무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기의 경우 이전 시기에 비하여 유물 수는 많지 않으나 그 구성은 중기에 이어 다채로운 경향을 보인다. 구름이나 연꽃, 사계절꽃, 작은꽃, 과실, 동물 외에도 문자무늬나 기하무늬와 함께 보배무늬가 주무늬로 사용된 유형들이 나타났다.

청연군주(1754~1814)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의의 무늬인 〈Fig. 27〉은 팔길상무늬 중 반장, 연화, 팔선무늬 중 호로와 절지형 복숭아와 석류, 복숭아꽃, 수(壽), 복(福)자의 모두 아홉 가지 무늬

〈Fig. 27〉 Peach, Pomegranate, Lotus, Plum Blossom, Bottle Gourd, Su(壽), Bok(福) Characters,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he Eight Taoist Symbols pattern Women's Ceremonial Jacket (NRICH, 2006, p. 405)

〈Fig. 28〉 Peach, a Fingered Citron, Lotus and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 Jacket excavated from the tomb of Lee Yeonung (NRICH, 2006, p. 406)

〈Fig. 29〉 Cloud and the Eight Taoist Symbols Pattern Men's Official robe with round collar (NRICH, 2006, p. 401)

〈Fig. 30〉 Cloud and the Eight Buddhist Symbols Pattern Buddhist priest's quilted robe (NRICH, 2006, p. 399)

를 주무늬로 하여 번갈아 수직, 수평방향으로 줄을 맞춰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이연웅(1818~1879년) 저고리의 무늬인 〈Fig. 28〉은 복숭아, 불수감 같은 과실에 팔길상무늬 중 보산, 보개, 금어, 반장, 연화를 조합하여 배열하였다.

19세기 안동 김씨 묘 단령의 무늬인 〈Fig. 29〉는 도교의 팔선무늬인 호로, 보검, 보선, 어고, 음양판, 옥적, 화람, 연꽃의 여덟 가지가 모두 표현되었는데, 이처럼 팔선무늬가 모두 한 직물에 시문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Fig. 30〉의 25조 가사는 서산대사 가사의 무늬와 유사한 팔길상무늬로, 여의가 빠지고 그 대신 주무늬 사이사이에 가는 실구름[絲雲]을 배치하였다.

20세기에는 황후 원삼, 왕비 치마, 왕세손 창 의 등 주로 왕실 복식 유물에 보배무늬가 사용된 사례가 남아 있다. 보배무늬는 왕실 유물과 불가를 통하여 중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im, 1979), 조선 말기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왕비 치마의 무늬인 〈Fig. 31〉은 호리병박 다섯 개를 원형으로 모은 오호로무늬를 주무늬로 하여 그 여백에는 쌍서각, 여의, 보 등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었다. 영왕비 치마의 무늬인 〈Fig. 32〉는 팔길상무늬 중 보개, 보산, 영지가 꽃힌 보병, 일반보배무늬 중 서책과 함께 박쥐, 석류, 복숭아, 두 종류의 절지형 작은꽃 등 모두 아홉 가지 무늬를 수직, 수평방향으로 줄을 맞춰 규칙적으로 배열

〈Fig. 31〉 The Five Bottle Gourd and Treasures Pattern
Skirt of Queen Yeong
(NRICH, 2006, p. 232)

〈Fig. 32〉 Peach, Pomegranate, Lotus, Small Flowers, Bat and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Skirt of Queen Yeong
(NRICH, 2006, p. 408)

〈Fig. 33〉 Peach, Pomegranate, a Fingered Citron, Auspicious Plants, Fruits, Characters, the Eight Buddhist Symbols and Treasures Pattern
Yellow Court Robe of Empress
(NRICH, 2006, p. 445)

하였다. 순종황제비 윤황후(1872~1904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삼의 무늬인 〈Fig. 33〉은 팔길상무늬 중 보산, 보개, 금어, 일반보배무늬 중 서각과 함께 복숭아, 석류, 불수의 삼다무늬의 열매와 꽃들과 수복(壽福), 다남(多男), 백수(百壽), 백복(百福), 천만세(千萬世)의 문자를 넣어 염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IV. 보배무늬의 구성 유형

연구대상인 121점의 직물의 보배무늬의 구성 유형을 분류해 보면 〈Table 1〉처럼 보배무늬 단독(8점), 구름+보배무늬(56점), 구름+식물+보배무늬(1점), 식물+보배무늬(42점), 식물+동물+보배무늬(5점), 동물+구름+보배무늬(4점), 식물+문자+보배무늬(3점), 식물+기하+보배무늬(1점), 기물+보배무늬(1점)의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일반보배무늬 단독의 주무늬 3점, 팔길상+일반보배무늬(1점), 팔길상무늬(4점), 사합여의형 구름무늬+일반보배무늬(54점), 팔선+실구름무늬(1점), 팔길상+실구름무늬(1점), 연꽃+사합여의형구름+일반보배무늬(1점), 연꽃+일반보배무늬(30점), 작은꽃넙쿨+일반보배무늬(3점), 꽃+팔길상+일반보배무늬(2점), 식물+일반보배무늬(2점), 과일+보배무늬(3점), 꽃+과실+보배무늬(2점), 꽃+동물+보배(1점), 과일+동

물+보배(2점), 꽃+과실+동물+보배(2점), 동물+구름+보배(4점), 과일+문자+보배(1점), 꽃+과실+문자+보배(2점), 꽃+과실+기하+보배(1점), 기물+보배(1점)이다. 이처럼 세분하였을 때 유형을 묶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무늬를 복합 구성한 사례들은 대개 중기의 유물이다. 1, 2점만 나타나는 사례이면서 조형성까지 특이한 경우는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직물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꾸준히 애용된 사합여의형 구름무늬의 보조무늬로서 일반보배무늬가 사용된 경우(54점)와 16세기에 유행한 연꽃넙쿨무늬와 일반보배무늬가 조합된 경우(30점)처럼 보조무늬로서 애용된 전형적인 유형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와는 반대로 19세기 안동 김씨 집안 묘 단령이나 조선 후기가사처럼 팔선무늬나 팔길상무늬가 주무늬로 활용되고 구름무늬가 보조무늬로 활용된 사례도 일부 찾을 수 있다.

또 파평 윤씨 저고리, 동래 정씨 배자나 대림금, 신경유 창의와 도포, 파평 윤씨 저고리처럼 주무늬와 보배무늬의 구분 없이 일반보배무늬나 팔길상무늬만으로 단위무늬를 이루며 단독의 주무늬로 사용된 사례가 5점이 있고, 서산대사 가사, 신경유 구의, 안동 권씨 저고리 끝동처럼 주무늬와 보조무늬의 구분이 있되 양쪽 모두 보배무늬인 사례도 3점이 있다. 그밖

<Table 1> Types of Treasures pattern on textiles in Joseon Period

Type		Configuration of Pattern	Qty of Relics	
Treasures		General treasures	4	8
		The eight buddhist symbols	4	
Cloud+Treasures		Cloud+General treasures	54	56
		The eight taoist symbols+Cloud	1	
		The eight buddhist symbols+Cloud	1	
Cloud+Flowers+Treasures		Cloud+Lotus+General treasures	1	1
Plants+ Treasures	Flowers+Treasures	Lotus+General treasures	30	37
		Small flowers+General treasures	3	
		Lotus+Chrysanthemum+The eight buddh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Plum blossom+the eight buddh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Plum blossom, Bamboo+Camellia+General treasures	1	
		Lotus, Plum blossom+General treasures	1	
	Fruits+Treasures	Peach, Pomegranate, A fingered citron, Lychee, Persimmon, Longan, Grape, Strawberry+The eight buddhist symbols	1	3
		Peach, A fingered citron+The eight buddhist symbols	1	
		The five bottle gourd+General treasures	1	
	Flowers+Fruits+ Treasures	Peony, Lotus+Peach+The eight buddhist symbols+The eight taoist symbols	1	2
		Peony, Peach blossom, Orchid, Hail's crab+Peach, Pomegranate, A fingered citron+General treasures	1	
Plants+ Animals+ Treasures	Flowers+Animal+ Treasures	Flowers representing four seasons, Criss-cross flower +Dragon, Butterfly+The eight buddhist symbols+The eight tao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1
	Fruits+Animal+ Treasures	Grape+Squirrel+General treasures	2	2
	Flowers+Fruits+ Animal+Treasures	Lychee, Pomegranate, Longan+Peach blossom, Pomegranate blossom, Hydrangeas+Plum blossom/Rimg, Peony/Instrument, Persimmon/Magic stick[<i>Yeouibong</i>]+Money/Bird+Fan/Flowers	1	2
Flowers+Flowers+Bat+The eight buddh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Animal+ Cloud+ Treasures		Dragon+Cloud+General treasures	1	4
		Phoenix+Cloud+The eight buddh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Crane+Cloud+The eight buddhist symbols+The eight taoist symbols+General treasures	1	
		Crane+Cloud+General treasures	1	
Plants+ Characters+ Treasures	Fruits+Characters+ Treasures	The Five Bottle Gourd+ <i>Man</i> (卍)+ <i>Su</i> (壽)+General treasures	1	1
	Flowers+Fruits+ Characters+Treasures	Peach blossom+Peach, Pomegranate+ <i>Su</i> (壽), <i>Bok</i> (福)+The eight buddhist symbols+The eight taoist symbols	1	2
		Pomegranate blossom, Peach blossom+Pomegranate, Peach, a	1	

		Fingered Citron+ <i>Su, Bok</i> (壽福), <i>Baeg, Bok</i> (百福), <i>Baeg, Su</i> (百壽), <i>Cheon, Man, Se</i> (千萬世), <i>Da, Nam</i> (多男)+The eight buddhist symbols+General treasures		
Plants+Geometry+Treasures	Flowers+Fruits+Geometry+Treasures	Flowers+Fruits+Geometry, Squared+General treasures	1	1
Household items+Treasures		Lantern+General treasures	1	1
		Total	121	

에 개인 소장 조선 전기 불복장물, 낙산사 공중사리탑 보자기, 안동 권씨 원삼 선단, 이연응 저고리 영왕비 치마처럼 꽃이나 과일, 동물, 기하무늬 등과 대등하게 단위무늬를 이루며 주무늬의 한 종류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보배무늬가 주무늬로 활용된 사례는 양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각각의 유물마다 유형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 구성상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

V. 결론

조선시대의 직물 121점에 나타난 보배무늬는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전기, 17, 18세기는 중기, 19, 20세기는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에는 38점의 유물 중 구름이나 연꽃을 주무늬로 하고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한 유형이 각각 17점과 15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기의 유물 68점 중에서도 두 유형이 각각 29점과 15점으로 전기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중기부터는 각각의 유물마다 무늬의 구성이 달라 유형을 묶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종류의 무늬를 조합한 새로운 유형들도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기까지는 보배무늬가 주무늬로 사용된 사례는 불복장물 같은 불교 관련 용도의 직물에서 찾을 수 있으나 17세기 즈음부터는 창의, 도포, 배자, 저고리, 구의, 대렴금 등 일반 복식에서도 일반보배무늬나 팔길상무늬를 단독의 주무늬로 활용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지는 변화이다. 또한 주무늬와 보조무늬 모두 보배무늬로 구성된 사례, 식물이

나 동물, 기하무늬 등과 대등하게 주무늬의 한 종류로 활용하는 사례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란, 국화, 난초, 해당, 매화, 동백, 수국, 복숭아, 석류, 불수감, 여지, 호리병박 등의 다양한 종류의 꽃이나 과실을 절지형으로 표현하고 그 여백에 보조무늬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용, 봉황, 학, 다람쥐 등의 동물, 구름과 조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무늬를 이룬다.

후기의 유물은 15점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유물 수는 많지 않으나 보배무늬의 구성은 중기에 이어 다채로운 경향을 보인다. 이전 시기부터 꾸준히 애용되었던 구름을 주무늬로 하고 일반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활용한 유형이 8점이며, 보배무늬가 문자무늬나 기하무늬와 함께 주무늬로 사용된 유형들이 나타났다. 20세기에는 순종황제비 윤황후 원삼, 영왕비 치마처럼 주로 왕실 유물에 보배무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팔길상무늬와 일반보배무늬, 팔선무늬와 일반보배무늬를 조합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121점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구성 유형은 보배무늬 단독(8점), 구름+보배무늬(56점), 구름+식물+보배무늬(1점), 식물+보배무늬(42점), 식물+동물+보배무늬(5점), 동물+구름+보배무늬(4점), 식물+문자+보배무늬(3점), 식물+기하+보배무늬(1점), 기물+보배무늬(1점)의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배무늬의 가장 보편적인 구성 유형은 사합여의형구름이나 연꽃, 작은꽃 등의 보조무늬로 조합된 유형이다. 그러나 중기부터는 보배무늬가 단독의 주무늬인 유형, 주무늬와 보조무늬 모두 보배무늬로 구성된 유형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구성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한국 전통 무늬의 조형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꾸준히 축적한다면 무늬의 특성을 근거로 복식 유물의 연대나 생산국가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다양한 무늬들은 전통한복용 옷감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패션의류, 주얼리, 인테리어 등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늬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Goryosa [高麗史] (1449-1451).
-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1). *Research Report of Excavated Costumes from Jeonjoo Lee Graves at hannam, kyonggi*. Yong-in,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ial Museum.
- Ha, M. J. (1996). The study on treasure pattern: The seven treasures and eight treasures which were shown in the textiles of Chosun Dynasty being the focal points (Master's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2282881>
-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Ed.) (1992). *Annotated Wol-inseogbo 1·2* [역주 월인석보 제 1·2]. Seoul, Republic of Korea: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Korean classic term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2001). *Korean classic term dictionary 4* [한국고전용어사전 4]. Seoul, Republic of Korea: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orean History Resources Research (Ed.) (1995). *Annotated No-geoldae* [譯註 老乞大]. Seoul, Republic of Korea: Thaeahaksa.
- Lee, E. J. (2004). A study on silks during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34521>
- Lee, J. Y., Jang, H. J., Do, J. Y., & Jang, J. A (2004). A Study on the typ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Bomu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2), 11-23.
- Lim, J. Y. (1979). The Study of seven-treasure-pattern in our country: The remaining relics being the focal poi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58226>
- Lim, Y. J (1998). *Korean traditional patterns 1*. Seoul, Republic of Korea: Yewo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2006). *Korean traditional pattern 1: Textile*. Daejeon, Republic of Korea: Nulwa.
- Oh, H. N. (2008). The treasure pattern on the textiles in Korea and China after fifteenth century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38618>
- Samguk-yusa [三國遺事] (1281).
- Sudeok temple (Ed.) (2004). *Patterns book of fabrics inside buddhist statues*. Yesan, Republic of Korea: Sudeok temple.
-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Ed.) (2001). Textile patterns in Chosun dynasty. Seoul,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ersity press.
-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Ed.) (2008). Jeongsagongshin, A military officer, Shin gyung-yoo's tomb excavation costume study. Yong-in,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ersity press.
- Suh, J. W.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erminologies related to Dress Styles from the 14th to the 18th through Nogeoldae Edition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3625>
- The Annals of King Sejong* [世宗實錄] (1433).
- The Annals of King Munjong* [文宗實錄] (1450).
- The Annals of lord Yeonsan* [燕山君日記] (1504).
- Yoon, B. E. (1997). Study on the seven-treasure-patterns in Choson period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3070944>